

지피 및 분화용 자생 은방울꽃 재배기술

Characteristics of Propagation and Cultivation in Convallaria Keiskei Used in Groundcover and Potted Plant.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송정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 ▶ 과명 : 백합과(Liliaceae)
- ▶ 일명 : 스즈란
- ▶ 학명 : Convallaria Keiskei
- ▶ 분류 : 다년초
- ▶ 분포 : 전국의 산야에 흔히 분포,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생



1. 은방울꽃이란? 식물의 특성과 관상가치

은방울꽃(Convallaria spp.)은 세계적으로 단 3종이 분포하는 백합과 식물로서, 북반구와 유럽중부에 나는 독

일은방울꽃(C. majalis), 한국과 중국, 일본에 나는 은방울꽃(C. keiskei), 미국 동부에 자생하는 미국은방울꽃(C. majuscula)이 있다.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은방울꽃은 잎 모양도 좋지만 꽃 모양이 은색의 예쁜 방울처럼 핀다 하여 '은방울꽃'이라 하며, 한문명으로 향기가 나는 꽃이라 하여 香水花, 난초처럼 품위를 가졌다 하여 草王蘭, 영명으로는 5월에 피는 백합과 같다 하여 'May lily'라고 한다. 학명 중 속명인 Convallaria는 라틴어 Convallis(계곡)와 그리스어 Leirion(백합)의 합성어로 계곡의 나리(백합)라는 뜻이다. 종명의 keiskei는 일본의 '伊藤圭介' 이름을 딴 것이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이며, '상쾌', '쾌락', '행복의 복귀', '행복', '기쁜 소식'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은방울꽃은 전국적으로 자생하지만 특히 경기도 일대 작은 산 숲 속의 반 그늘진 곳에 흔히 분포하며 경기도의 도화(道花)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여러해살이식물로 앞에 털이 없으며 땅속줄기(地下莖)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디마다 밑에 수염뿌리가 달리고 마디의 눈에서 새순이 땅위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그림 1 참고) 자생지를 가보면 군락형태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꽃이 피었을 때 키는 25cm 내외이며 잎은 2~3개가 긴 달걀모양의 타원형을 이루는데 잎의 길이는 12~18cm, 폭은 5cm정도로 잎의 관상가치가 높다. 5~6월에 피는 꽃은 백색 또는 은색의 작은 방울이나 종처럼 생겼으며 잎의 안쪽에서 꽃대가 나와 긴 종 대롱

처럼 아래를 향해 10개 정도가 차례로 매달려 핀다. 잎이나 꽃 모양도 예쁘지만 꽃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분화용으로 관상가치가 높다.

2 국내 생산 현황 및 재배기술

대부분의 자생화 재배처럼 은방울꽃 한 가지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 현재 국내 자생화 재배농가는 약 210여 농가 이상이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데다 일반의 자생화 수요도 일정하지 않아 일반 화훼작물들처럼 농가가 특정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30~50품목의 많은 종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은방울꽃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생화는 현재 도로변, 공원 등 화단이나 조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화용으로 이용되는량은 그리 많지 않다. 은방울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50여 개 농가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재배되는 은방울꽃은 한국 자생종인 은방울꽃과 독일은방울꽃이다. 은방울꽃의 번식은 종자번식이나 영양번식 모두 가능하지만 종자번식의 경우 씨앗을 뿌리면 5년 뒤에 개화되기 때문에 주로 영양번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영양번식은 이른봄이나 가을에 하는데, 한 포기씩 기준으로 한번 나눠준 포기는 3년을 지나야 다시 꽃눈이 만들어지므로 영양번식을 해도 개화주로 키우기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은방울꽃 재배는 화단용의 경우 양지바른 곳보다는 반 그늘 또는 그늘진 곳이 좋으며 햇볕은 오전에는 약간 들고 오후에는 그늘진 곳이 적당하다. 토양은 약간 습기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한 양토나 사양토가 좋다. 화단에 심는 시기는 3~4월이 좋으며 심을 곳은 미리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잘 섞이도록 해 준다. 심을 묘는 전년도에 꽃눈이 충분히 만들어진 것이어야 그 해에 꽃을 볼 수 있다. 묘는 꽃눈이 3~4개가 붙어 있는 것을 20×30cm 정도 간격으로 심고 눈이 살짝 물힐 정도로 알게 심는다. 꽃이 진 뒤에는 가을까지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도록 잘 관리하지 않으면 꽃눈의 형성이 어려워 이듬해 꽃을 보기 어려우므로 여름에 원예용 복합비료를 한 두 번 주는 것이 좋다.

분화용의 경우 화분 배합토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를 6:4로 혼합한 것이나 부엽토, 배양토, 모래를 4:2:4로 배합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화분의 크기는 이용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가정 분화용의 경우 4호분의 플라스틱 포트가 적당하며 꽃눈이 3개정도 달린 묘를 얇게 심는다. 심은 것은 화분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주면서 온도를 주/야 20/10℃정도로 관리하면 심은 지 30~40일정도 지나서 꽃이 피게 된다. 꽃이 진 후에는 화분을 조금 더 큰 것으로 바꿔 양분관리를 잘 해주어야 이듬해 다시 꽃을 볼 수 있다. 병충해는 아직 특별한 것은 없으나 지나치게 과습할 때 뿌리썩음 현상이 발생되는데 잎의 생육이 나빠지고 꽃눈이 붉은 색을 띠게 된다. 배수에 유의하여 사전에 발생을 방지한다.

은방울꽃은 자연상태에서 5~6월에 개화하지만 이 식물의 개화생리를 잘 알면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다. 즉 은방울꽃의 꽃눈 분화는 4~8월의 장일기(낮의 길이가 긴 기간)에 이뤄지며 9월부터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자연상태에서는 저온 때문에 강제휴면에 돌입하게 되어 봄에 온도가 상승해야 잎이 나오고 꽃대가 나오게 된다. 최근의 몇 가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방울꽃의 휴면에 필요한 저온 요구량은 다른 영년생 초본들과 마찬가지로 10℃이하를 기준으로 볼 때 약 500시간정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인위적으로 꽃 피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 즉 노지의 화단에서 12월 상순까지 두게 되면 휴면에 필요한 저온을 충분히 받게 되므로 12월 상순에 뿌리를 캐내 화분에 심어 가온이 되는 온실이나 실내에서 관리하면 1월 중하순에 꽃이 피게 된다. 따라서 12월 상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땅속에서 꺼내 화분에 심어 온도만 맞춰주면 심은 지 40일 정도 지나 꽃이 피게 된다. 또는 9월 하순경에 꽃눈이 완전히 분화된 뿌리를 캐 5℃ 정도의 저온고에 상토에 섞어 마르지 않도록 잘 보 관하면서 약 4주정도 후부터는 원하는 시기에 꺼내 꽃을 피울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충분히 형성된 꽃눈을 인위적으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꺼내 연중 꽃을 피우기도 한다.

3 유통 및 상업화 전망

은방울꽃은 분화용으로 관상가치가 높지만 실내의 낮은 광도조건에서 장기간 견디기 어려우며, 종자 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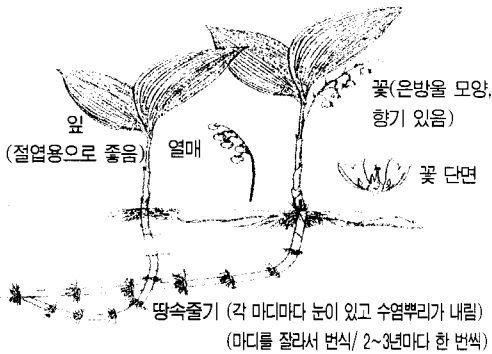


그림 1. 은방울꽃의 지상부와 지하부 형태

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뿌리줄기(根莖)를 나누어 번식할 경우 증식율이 낮아 일반 화훼작물처럼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아직 분화작물로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은방울꽃의 유통은 일부는 분화용으로써 3~5치의 포트묘 형태로 일반 꽃가게에 공급되고 있고 일부는 지피나 조경용으로 시공자에게 납품되고 있는데, 지피 및 조경용으로는 어느 정도 대량수요가 있으나 분화용으로 거래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유통에 대한 정

확한 통계자료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은방울꽃은 식물체의 크기가 작고 잎이나 꽃 모양이 좋아 분화용으로 관상가치가 매우 높으며 정원이나 화단용으로도 반 그늘진 곳에 심으면 연중 감상할 수 있으며 잎 모양이 좋아 절엽용으로도 이용가치가 크다. 또한 음지에 강한데다 추위에도 잘 견디며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균일묘가 단기간 내에 연중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된다면 화단용 또는 단기간 감상하는 소비성 소형 분화용으로 이용이 크게 기대되는 자생화다.

4. 인용문헌

- 윤평섭. 1999. 은방울꽃의 자생지 환경과 개화생리 연구. 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송정섭. 2000. 자생화 산업 현황 및 화훼화 방향. 한국야생화개발연구회·원예연구소 심포지엄 발표자료요약집.
- 농촌진흥청. 1989. 원색도감 한국의 자생식물 '초본류'.
- 이창복. 1982. 대한식물도감. **조경수**

